

# Story 11

임 \* \* 경영학부 2020년 졸

## 한국관광공사 사무직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한국관광공사
- ▶ **직무** 사무직
- ▶ **스펙** 학점: 3.7  
토익: 855점
- ▶ **인턴** LH 임대공급운영부 체험형 인턴 3개월 1회
- ▶ **봉사활동** LH 멘토와 꼬마친구 홍보기자 2년  
JA Korea 대학생 경제교육봉사단 부회장 1년 6개월)
- ▶ **기타** 경영대학 홍보대사 드림리더스 2기  
경영대학 국제금융분반 2년 6개월  
폴란드 포즈난 경제대학 교환학생 1학기
- ▶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 1급, KBS 한국어 2+





## 대학생활 스토리

### 📖 학점 3.0에서 4.5로

2015년, 2학년 때 경영대학 홍보대사 드림리더스 2기 활동을 하면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계속되어 왔던 커리어 로드맵 작성과 발표에서 전체 9명의 멤버 중 3.0으로 가장 저조한 학점, 저조한 의지, 저조한 발표 실력으로 대장님께 죄송할 만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하향지원해서 왔기 때문인지, 앞서나가는 동기들을 봐도 내가 대충 해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림 리더스 활동이 종료될 시기가 되어서야 이런 마음가짐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2년간 학교 공부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후회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겸손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현재에 충실하자는 제 가치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는 대학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1학기 때부터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에 따라 나가고, 고등학교 때처럼 시험기간에 맞추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부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 때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았지만, 도서관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 더없이 좋은 자극제가 되었고, 2016년 2학기에는 4.5 만점의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에 대한 의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취직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 📖 토익 500점으로 폴란드 포즈난 교환학생 도전

2017년 상반기에 영어 점수를 준비하여 여름에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선정되어 하반기에 장학금과 비자를 신청하여 2018년 상반기에 교환학생을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봤던 모의 토익 점수는 500점 정도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일절 하지 않았었지만, 교환학생 파견을 가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대 후문 맥도날드 옆 영어 학원을 2달간 다니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등학교 때는 왜 하지 않았는지를 후회했습니다. 두 달간 매진한 결과 870의 토익 점수를 만들 수 있었고 폴란드 포즈난 교환학생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미래에셋 장학금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비자도 무사히 발급받았습니다. 중간 공백 기간 동안 컴활 1급, 한국사 1급을 땀과 2018년 1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폴란드에서 한 학기를 머물렀던 경험은 제게 무엇보다 소중한 기억이 되어 주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 체류 경험은 또 다른 스펙이 되어 이번 관광공사 면접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관광 산업에서는 교환학생을 포함한 해외 체류 경험이 매우 큰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학년 1학기 교환학생이 었기 때문에 더 체류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3학년 1학기 정도에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하고, 꼭 한 번 대학 생활 동안 해 보아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면접 스테디 없이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일등 공신

2015년 2학기 때부터 2년 6개월간 국제금융분반 활동을 하면서 깊이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 구글링 잘하는 방법, 핵심 주제로부터 논지를 선정하고 작성하는 방법,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 남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광공사 PT 면접과 최종 면접을 준비하는 데 더없이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제금융분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면접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PT면접의 경우 흔히 찾아보는 공사의 홈페이지와 최근 뉴스만 가지고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논문, 유관기관의 보고서까지 참고해야만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의 주제가 출제됐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당황하지 않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으며 답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 1회 정도의 면접 스테디를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하기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활동으로 주 1회 1시간, 2년 6개월간 남들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활동을 해왔기에 면접 준비와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이 많이 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많이 되었기에 그만큼 답변에 자신을 가질 수 있고, 적어도 물어보는 말에 어울리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금융분반 활동을 매우 추천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 1회 면접 스테디를 하시거나 평소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많이 해 보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경제교육봉사단 운영진을 맡으며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PPT 발표를 1년 6개월간 해왔기 때문에 다수의 앞에서 준비된 내용을 말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 LH 체험형 인턴 후기

교환학생 귀국 직후 2018년 하반기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는데, LH 멘토링 활동을 했던 부분이 서류 전형에서 이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교환학생 경험과 국제금융분반 활동으로 내 진짜 생각과 가치관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기에 LH 인턴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기업 인턴이기에 면접이나 여타 서류전형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매우 컸습니다. 경력기술서나 자소서에서 작성하는 내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민원 응대를 직접 했었기에 그 부분에서 매우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인턴 경험도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인턴으로 일하며 어떤 직무가 내게 가장 잘 맞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 업무로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 출장 근무가 훨씬 만족도가 높고 즐거웠습니다. 한국관광진흥직은 사무업무 비중보다 출장근무 비중이 높

은데, 이러한 성향이 맞아 최종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서 (한국관광공사)

### 1.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요구사항 파악 내용, 당시의 어려웠던 점과 해결방안,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서술) (300~700자)

현장 접수를 받던 중 공고문에 의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고객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그 후 공고문에 따른 조건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접수 처리는 가능하지만, 이후 조건에 의해 탈락될 수 있으며 소명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공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바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새로운 임대주택 공고가 뜰 경우 그에 따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등기 주소 분리나 세대주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이외의 다른 서비스인 주거급여를 추천하며 최대한 공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사의 고객으로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무사히 고객의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상황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하고 매우 부듯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잘 빠르게 제공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2. 지금까지의 경험 중 2인 이상이 모여 공동 작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속에서 지원자의 역할과 협력과정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700자)

열정과 긍정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토론 동아리의 학습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3명에서 팀을 이루어 타 동아리와 토론 대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토론 주제가 익숙하지 않아 저와 팀원 모두 토론을 준비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적은 토론 인원으로 더 긴 시간동안 토론에 임해야 했기에 찾아봐야 할 자료의 양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환기하기 위해 '어려운 주제가 아니니 충분히 할 수 있다', '승패가 정해지는 게 아니니 즐기면서 하자' 등의 긍정의 말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지치는 기색 없이 더욱 토론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팀원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고 보다 많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앞

장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자 팀원들도 저와 함께 토론 준비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할 때보다 같이 의견을 모으니 토론 준비에도 점점 재미가 붙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3주간 같이 준비한 결과,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 팀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강점인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은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백분 활용하여, 어떠한 업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완수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드시 지켜가고자 했던 도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지켜가고자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700자)

도덕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에 속한 여러 사람들끼리의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홍보기자로 활동하면서 단체 행사 기획, 멘토 모집 면접 등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제 한계의 범주를 넓히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이어졌던 멘토링 일지 작성 방식에 회의감을 느껴 역할 갈등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멘토링 일지는 매우 간략한 형식으로 출석체크 개념으로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나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회장단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담당 과장님께 칭찬과 함께 허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지 형식을 일기 형식으로 재정비했으며, 수시로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등 일지 사용을 독려하였습니다. 업무량이 두 배로 많아져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지만 제 역할을 해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은 조직을 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4.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아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700자)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실명제, 해외관광마케팅, 국제회의 유치, 국제협력, 관광안내서비스,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국내 관광 수용 태세 개선, 국내 관광 진흥, 남북관광교류, 관광기업지원, 스마트관광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타 기관, 지자체, 기업,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에 있어서 한국관광공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15개의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했고, 2021년까지 274개의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유치

를 활성화하고, 관광중소기업 특화형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관광기업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부산에 1개의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지원 기업 수는 2019년 기준 86개이고 2021년까지 127개, 관광기업지원센터는 2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한국관광공사는 실무 부서뿐 아니라 외부전문가, 시민 참여단,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협력은 사업의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입사지원경험 (한국관광공사 사무직)

### 가. 인·적성 검사 후기

#### 📖 NCS 50%, 40문제

이번에 관광공사에 NCS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가 없었기도 했지만 평소 주 2회 스테디를 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NCS 스테디에서 봉투 모의고사 풀이, 5급 외교관 시험 언어영역 풀이, 사칙연산 비타민 풀이를 해왔는데, 준비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특히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정답률도 낮지만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관광공사 NCS 문제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가 문제해결능력 이었는데 거의 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NCS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언어 영역은 고등학교 때부터 1등급을 놓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고, 언어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을 정하고 이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표준편차를 매겨서 점수를 환산했기 때문에 합격의 70% 이상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전공 50%, 40문제

경영학으로 시험을 봤는데, 회계학 직렬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학 문제가 여럿 출제 되었습니다. 경영학 + 재무관리 + 회계학 이었고 매우 쉬웠다는 평이 다수였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전공 공부를 2019년 11월부터 시작했고, 코로나로 채용이 미뤄지면서 두 번째로 보는 전공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파악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회계학은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B학점의 회계원리 이후 무지 상태였고, 오정화 1000제와 전공서적을 참고하며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독학을 선택했습니다.

재무관리는 대학교 때 투자론, 국제재무론을 수강하여 모두 4.5를 받을 만큼 좋아했던 과목이었지만 거의 무지에 가

까운 상태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민환의 재무관리 교재로 공부했고, 다른 재무관리 교재보다 훨씬 친절한 설명과 문제 해설을 제공하여 매우 추천합니다.

경영학은 전수환의 경영학을 참고했고, CPA 1차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경영학에 재무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6회 정도를 풀었는데, 실제로 전공 문제에 1차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 기업의 합격 후기를 봐도 CPA 기출문제를 2-3회독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경영학 대비를 위해 기출문제를 풀 것을 추천합니다.

## 나. 면접후기

### (1) 1차 면접 (4배수 - 2배수)

#### PT 및 직무경험 면접 70%

면접은 다대일로 진행되었고 면접관 4분이 계셨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됐고, 면접관 4분이 계시는 방이 10개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마다 질문이 조금씩 달랐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장소는 서울 코엑스였습니다.

피티 주제와 상황, 관련 자료를 A4 2장 분량으로 나눠주고 30분을 줍니다. 30분 동안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 7-8분, 경험면접 7-8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PT 면접 주제 : 관광벤처산업 육성 방안

- 내 답변 : 1.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액셀러레이팅) / 2.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관광 활성화 예시) / 3. 지원 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 4. 지역 및 기관, 학계와 협력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예시) / 5. 금융 지원을 받는다 (갭투자, 프로젝트금융) / 6. 데이터 통합 관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TDSS 활용) 으로 6가지 방안 제시

#### • PT 추가 질문

-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과 그 이유
- 가장 현실성 없는 방안과 그 이유
- 어디와 가장 협력해야 할 것인지
- 피티면접을 준비하는 데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지
-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피티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 갭투자가 무엇인지 보충설명
- 단계별 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 벤처와 관광벤처의 차이가 무엇인지

국제 금융 분반 활동을 하면서 관광산업 연구 보고서와 논문을 많이 읽으며 공부했고, 관광공사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혁신보고서와 계획서를 읽으며 공식적인 해결 방안 등을 알고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으며 질의응답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를 보는 것과 최근 뉴스를 보는 것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2019년 한국관광공사 혁신 계획 중 작은 골자로 한 줄로만 써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이 좋게도 관광벤처 육성을 자소서에서 언급하며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산업과 기업 조사를 깊이 있게 하느냐가 1차 면접의 PT 점수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 • 직무경험 질문

- 팀 프로젝트 경험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 경험. 교환학생 팀플 사례를 이야기했고 매우 관심 있게 들어 주셨습니다. 해외 경험이 관광공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느꼈던 이유입니다.
  - 조직 내에서 프리라이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조직원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 일처리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LH 인턴이 경력사항에 있는데, 왜 관광공사에 지원했는지. 원래부터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교환학생 사례를 엮어 이야기하며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자소서보다는 면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접자 중에는 자소서에 있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 자소서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장에서 내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소서보다는 답변 내용에 면접관이 집중하셨고, 그에 따른 꼬리질문을 하셨습니다.
- 전체적인 스타일은 질의응답과 꼬리질문을 통해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경우, 거짓인지 파악하는 경우였습니다. 꼬리질문에 당황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탈락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영어면접 30%

영어 면접이 부담이 됐습니다. 후기에 토익 스피킹 7 정도가 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보자 생각했습니다. 토익 스피킹 150이지만 질문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 독해 및 관련 의견제시, 자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를 나눠주고 15분 동안 읽고 요약하는 시간을 줍니다. 종이에 요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종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외워볼까 했지만 긴장이 되고 시간이 짧아서 종이를 읽었지만 이에 대해서 감점이 주어



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를 빼고 요약문을 만들어 읽었는데, 면접관님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질문하시길래 죄송하지만 그 단어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자유 질문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다른 면접자의 후기를 들어보니 해당 단어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꼬리질문을 이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던 것이 영어면접에서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 영어 기사 : voluntourism 의 현 상황과 문제점

A4 반 장 분량의 영어 기사를 읽고 요약해서 말해보기, 관련 의견 제시(꼬리질문 다수)

##### • 자유질문

- 지원동기
- 일하고 싶은 부서
- 해당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 외국인 친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장소나 여행지
- 가장 최근에 간 여행지

외국인 친구와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2차 면접 (2배수 - 1배수)

원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면접이 진행됐고, 오전 조라 전날에 가서 숙박을 해야 했습니다. 최종면접도 다 대일이었고 면접관 4명이 계셨습니다. 3개의 방이 있었고 저는 두 번째 조였습니다.

##### • 면접질문

- 관광공사의 사업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 관광공사의 사업을 큰 틀로 분류하여 4가지로 말씀 드렸고, 4가지에 대해 계속해서 꼬리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 사람들이 관광공사가 뭐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을 것 같은지
-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 것 같은지 : 홍보와 마케팅이라고 대답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꼬리질문이 들어와 당황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협력한 경우와 힘들었던 적 : 희생과 살신성인
- 관광공사의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 허정하 선생님과 모의면접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이라 당황하지 않고 번하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협력하는 지자체와 관광업계 모두가 고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관광공사의 지역 축제 2가지 ; 보령머드, 대구지맥축제
-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지역 축제가 무엇인지 : 순천 빛축제

-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 멘토링 일지 개정을 통해 내부 마케팅과 외부마케팅에 성공한 사례
- 앞 질문의 경험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꼬리질문으로 누구와 했는지,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왜 그 수단을 선택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보완하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답변, 준비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 자유롭게 1분 : 최근이슈와 사업을 연결해서 답변했습니다.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확인하셨습니다.

3번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탈락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진정성과 이미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공사의 업무와 이미지 자체가 활발하고 외향적이라 그에 맞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뽑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차 면접을 준비하면서 교환학생 동안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점, 국제금융분반을 통해 말하기 연습을 충분히 해왔던 점, 허정하 선생님과 모의면접을 할 수 있었던 점이 합격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답변을 통해 이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답변 중 거적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 들켰을 것이고 2차 면접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 다. TIP

경영대학 취업지원관 선생님과 모의면접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자들끼리 하는 스터디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담당 선생님의 눈으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던 질문을 받게 되었고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되는 대로 올라온 면접 영상을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인싸담당자, 면접관 이형 님의 면접 관련 동영상을 거의 모두 보고 면접을 들어갔고, 두 분의 의견이나 생각이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력 관리가 되지 않아 매우 고생했는데, 꾸준한 관리를 통해 면접장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면접의 경우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마스크를 벗었다 쓰는 5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제 이미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면접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성세대이신 임원 분들께 이미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